



FIP-2014-0001 (통권 제200호, 2014. 06.13)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ISSUE  
PAPER



## Contents

### < 요약 >

I. 검토배경 .....	1
II.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 .....	2
1. 상품 교역 .....	2
2. 직접투자 .....	9
3. 서비스수지 .....	15
III. 향후 경제협력 과제 .....	18
< 참고문헌 > .....	22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아시아팀 김봉만 과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99    FAX : 02-6234-5290    E-mail : kbm@fki.or.kr



## 1. 검토 배경

- 한국 경제에 있어 일본의 비중은 최근 감소하였지만, 한때 우리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일본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교역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투자 측면에서도 일본은 2위 투자국이며, 서비스수지 측면에서도 우리의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한 흑자국임.
- 하지만 한일 경제관계 언급 시에는, 항상 대일무역적자 및 소재부품의존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른 경제분야의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에 대한 조명은 부족하였음.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그간 일본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상품교역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도 점검해보고, 향후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에 대해 검토코자 함.

## 2.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

### □ 상품교역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韓日 양국의 상품 교역이 431배 증가하였는데, 대일수출은 776배, 수입은 343배 늘었음.
- 무역수지는 누적적자가 5,000억 불에 달하는데, 부가가치기준으로 재평가한다면 1/3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주로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구조에서 기인

### □ 투자

- 한국의 對日투자 대비 일본의 對韓투자가 6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은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1위,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 국가임.
- 일본의 對韓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컸으며, 투자국가 중 직접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고용 등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 ● ● ● 요약 ● ● ●

- 최근에는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을 위한 부품소재 특히 화학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당 투자금액도 확대하는 등 투자가 대형화되었음.

### □ 서비스 교역

- 서비스 교역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대해 134.47억 불의 누적 흑자를 기록, 일본은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이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임.
- 관광수지분야의 흑자가 가장 컸으며, 누적 관광객 기준으로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았음.
- 서비스수지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분야가 지식재산권사용수지인데 이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무역적자가 증가한 데 기인함.

### 3. 향후 경제협력 과제

- 향후 對日수출은 석유제품의 일본 내 소비 감소, 중국 등 타국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내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 상사 및 유통업체 등 현지 기업과의 협력, 부품 공통화 및 기술표준 협력을 통해 일본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임.
-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품소재 분야의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산화를 추진하고, 기술격차가 큰 정밀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최근 제3국에서 인프라, 자원, 제조업 분야에서 韓日 양국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임.

## I. 검토 배경

- 한국 경제에 있어 일본의 비중은 최근 감소하였지만, 한때 우리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일본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한국의 교역에서 대일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7년 44.47%, 대일수출은 1973년 38.4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양국의 경제규모가 확장되면서 교역에서의 양국의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기준으로 수입은 10.15%, 수출은 5.81%로 감소
- 교역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투자 측면에서도 일본은 2위 투자국이며, 서비스수지 측면에서도 우리의 주요 교역국 중 유일한 흑자국임.
  - 한일 양국은 각각 서로에게 3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이며, 양국의 교역규모는 국교정상화 이후 약 431배 증가
  - 일본의 對韓투자액은 작년까지 총 355억 달러로 우리 FDI의 약 16%를 차지
  - 서비스수지도 1998년 이후 한국이 134.47억 불 누적 흑자
- 하지만 한일 경제관계 언급 시에는, 항상 대일 무역적자 및 소재부품의 존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른 경제분야의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에 대한 조명은 부족하였음.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그간 일본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상품 교역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도 점검해보고, 향후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에 대해 검토코자 함.



## Ⅱ.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

### 1. 상품 교역: 431배 증가(수출 776배, 수입 343배), 무역수지는 적자

-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49년 만에 수출 776배 증가, 누적액 5,843억 불
- 韓日 국교정상화가 된 1965년 약 4만 5,000불이었던 對日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346.6억 불 기록
  - 2011년 사상 최대치인 396.7억 불 기록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로 올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

#### 〈 對日 상품 수출 추이 〉

(단위: 천 불)

년도	수출		
	금액	비중(전체수출대비,%)	증가액
1965	44,646	25.50	
1970	234,329	28.05	189,683
1973	1,241,539	38.49	1,007,210
1980	3,039,408	17.36	2,805,079
1990	12,637,879	19.43	9,598,471
2000	20,466,016	11.88	7,828,137
2010	28,176,281	6.04	7,710,266
2011	39,679,706	7.14	11,503,425
2012	38,796,057	7.08	-883,649
2013	34,662,290	6.19	-4,133,767
2014(01~04월)	10,929,111	5.81	-624,345
누적	584,339,26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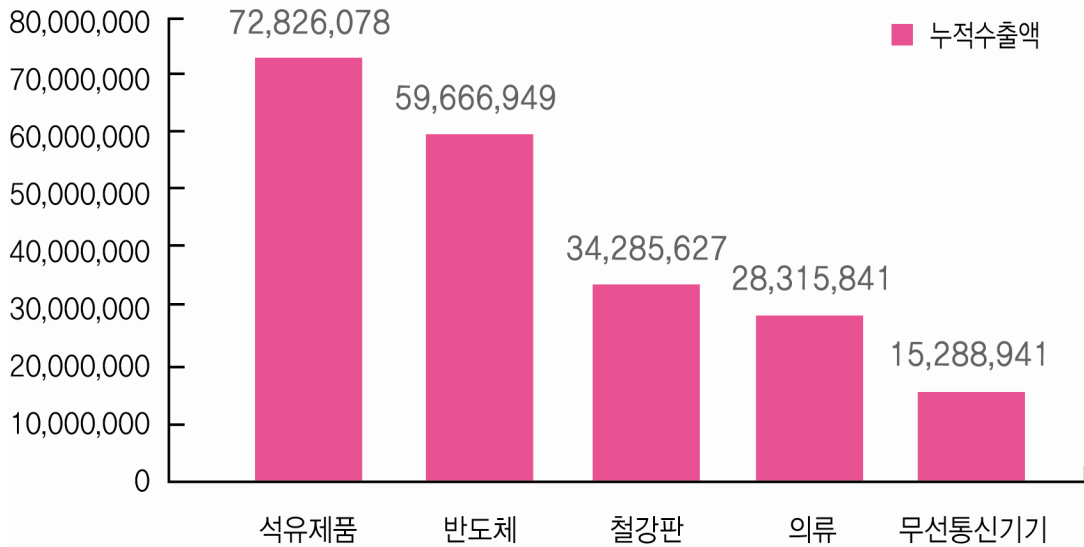
-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25.50%로 시작하여, 1973년 대일수출 급증으로 인해 역대 최고치인 38.49%를 기록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
  - 2014년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인 5.81%
- 누적액은 5,843.3억 불로, 대중수출 누적액(1992~2014.4월)인 1조 1,913억 불의 절반수준이며, 대미수출 누적액(1965~2014.4월) 9,953억 불에 이어 3번째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반도체, 철강판, 의류, 무선통신기기 순

-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내 석유제품 수급에 일시적인 차질이 생겨 급작스럽게 수출이 2배 이상 증가

\* 석유제품 對日수출: 3,603,310천 불(2010년) → 8,601,790천 불(2011년) → 8,594,307천 불(2012년) → 8,442,499천 불(2013년)

〈 對日수출 상위 품목(1988~201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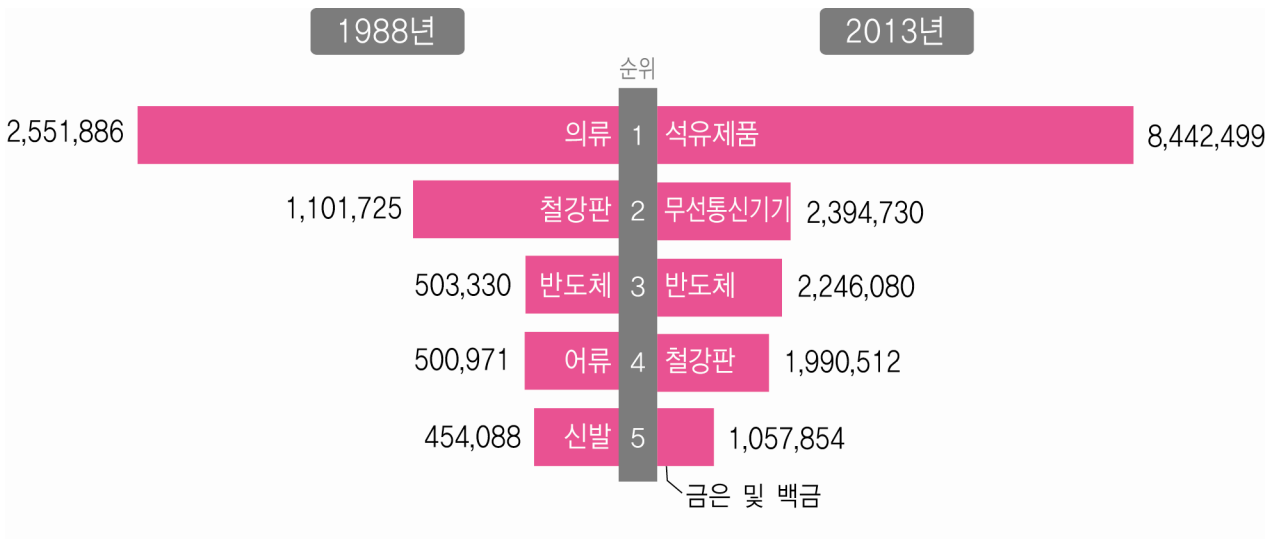
(단위: 천 불)



- 품목별 통계치가 시작된 1988년 당시 수출 상위 품목에는 의류, 어류, 신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교체

〈 對日수출 상위 5개 품목 변화 〉

(단위: 천 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올해 1분기 對日수출은 10.7% 감소하였으며, 對日수출 최대품목인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38.8%로 심각함.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증가한 화력발전용 중유의 일본 내 수요가 타 에너지 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반면 철강판과 자동차 부품은 각각 33%, 25.8% 수출 증가
- 對日수입 343배 증가, 누적액 1조 787억 불(1965~2014년 4월), 한국 총수출이 증가하면 對日수입도 증가하는 구조
  - 1965년 수교 이후 對日수입은 1억 7,498만 불에서 시작하여 연평균 14.24% 증가, 2013년에는 600억 불 돌파
    - 2011년 683억 불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2년 넘게 감소세 지속
    - \* 2년 연속 對日수입이 감소한 사례는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對日 상품 수입 추이〉

(단위: 천 불)

년도	금액	비중 (전체수입대비,%)	증감액
1965	174,980	37.75	-
1967	443,033	44.47	268,053
1970	809,282	40.79	634,302
1980	5,857,810	26.27	5,048,528
1990	18,573,851	26.59	12,716,041
2000	31,827,943	19.83	13,254,092
2010	64,296,117	15.12	32,468,174
2011	68,320,170	13.02	4,024,053
2012	64,363,080	12.38	-3,957,090
2013	60,029,355	11.64	-4,444,725
2014(01~04월)	18,094,543	10.15	-2,829,651
누적	1,078,750,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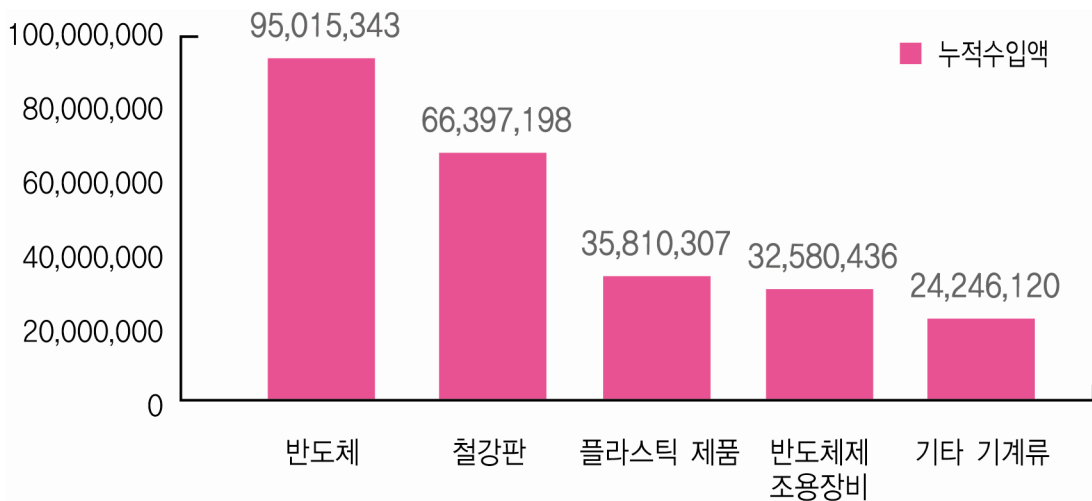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7년 44.47%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14년 4월 기준으로 10.15%로 감소
- 누적액으로는 1조 787억 불로, 1965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수입 누적액 6조 2,003억 불의 17.39%를 차지

-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950억 불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순

〈 對日수입 상위 품목(1988~2013년) 〉

(단위: 천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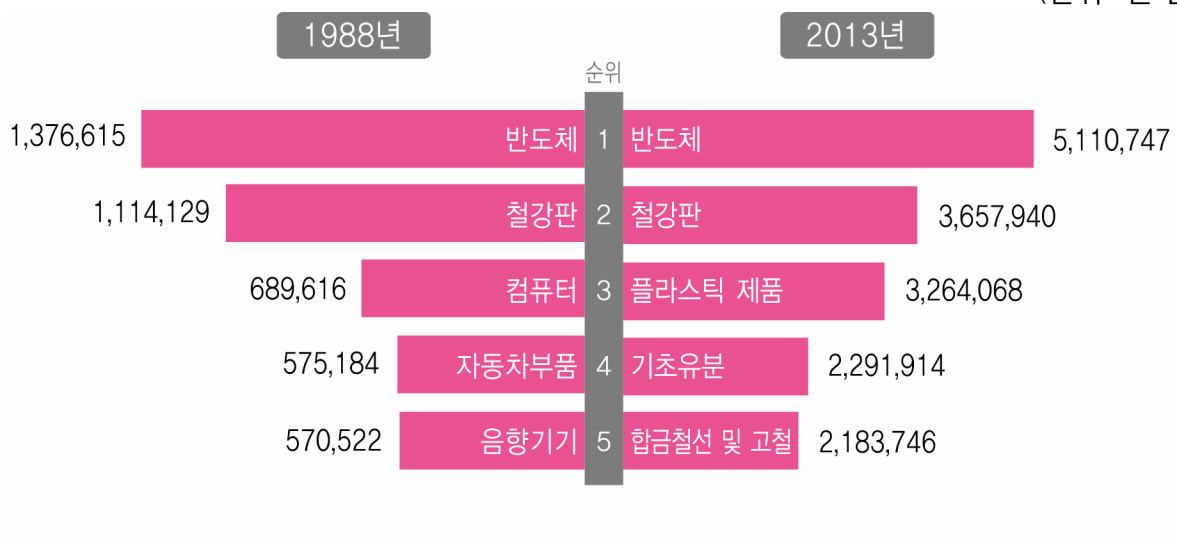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반도체와 철강판의 경우 1988년과 2013년 동일하게 對日수입 1,2위 품목이며, 2013년에는 플라스틱제품 및 기초유분 등 화학제품이 3,4위를 차지

〈 對日수입 상위 5개 품목 〉

(단위: 천 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의 수출상품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산업구조상, 한국의 총수출이 1% 증가 시 對日수입도 0.73% 증가해왔음.
  - 한국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재료인 감광성수지의 99%, 실리콘웨이퍼의 70%를, 디스플레이의 경우 반사방지 필름의 99%, 액정편광판 보호필름의 100%,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의 약 60%,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용 글라스는 75%, 무단변속기 92%를 일본기업이 점유하고 있음.
- 올해 1분기 對日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Delta 13.9\%$  감소하였으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외하고는 수입 상위 10대 품목이 모두 감소세
  - 이는 對日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 소재의 수입이 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 대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올 1분기 對日수입 상위 5위 제품 수입 증감률(%): 반도체( $\Delta 10.2$ ), 철강판( $\Delta 10.2$ ), 플라스틱제품( $\Delta 14.4$ ), 기초유분( $\Delta 5.1$ ), 반도체제조용장비(56.6)
- 누적 對日 무역적자 4,944억 불로 올해 3분기內로 5,000억 불을 넘어설 듯, 부품소재 對日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적자도 감소 추세
- 1965년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한 번도 흑자 전환 없이 무역적자가 지속되어 2014년 4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4,944억 불 누적됨.

〈 對日 상품 교역 추이 〉

(단위: 천 불,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금액	금액	증감액
1965	44,646	174,980	-130,334	
1970	234,329	809,282	-574,953	-444,619
1980	3,039,408	5,857,810	-2,818,402	-2,243,449
1990	12,637,879	18,573,851	-5,935,972	-3,117,570
2000	20,466,016	31,827,943	-11,361,927	-5,425,955
2010	28,176,281	64,296,117	-36,119,835	-24,757,908
2011	39,679,706	68,320,170	-28,640,464	7,479,371
2012	38,796,057	64,363,080	-25,567,023	3,073,441
2013	34,662,290	60,029,355	-25,367,065	199,958
2014 (01~04월)	10,929,111	18,094,543	-7,165,431	2,205,307
누적	584,339,269	1,078,750,378	-494,411,11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1965년 1억 3,000만 불 적자로 시작된 對日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사상최대 규모인 361억 불 적자를 기록
  - 2011년부터는 對日수출의 확대와 對日수입 감소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
- 對日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 內 5,000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상당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로 가공된 한국산 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재가공을 거쳐 일본으로 수입되기 때문임.
  - \* OECD에 따르면 '09년 부가가치 기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85억 달러에서 3억 6,000만 달러로 감소
  -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관기준 무역통계의 1/3 수준으로 감소

〈 韓·日 통관 및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 〉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부가가치 기준			비고
	수출	수입	무역수지a	수출	수입	무역수지b	
1995	17,049	32,606	-15,557	16,114	22,841	-6,726	43.23%
2000	20,466	31,827	-11,361	14,848	19,926	-5,079	44.70%
2005	24,027	48,403	-24,375	17,171	24,922	-7,751	31.79%
2006	26,534	51,926	-25,392	17,898	25,603	-7,705	30.34%
2007	26,370	56,250	-29,879	18,132	26,824	-8,692	29.09%
<b>2008</b>	<b>28,252</b>	<b>60,956</b>	<b>-32,703</b>	<b>13,016</b>	<b>24,699</b>	<b>-11,683</b>	<b>35.72%</b>
2009	21,770	49,427	-27,656	11,476	21,023	-9,547	34.52%

자료: 통관 기준은 무역협회 무역통계, 부가가치 기준은 '韓日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2013, 산업연구원)' 인용

- 또한 對日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인 소재 부품 분야의 적자 및 일본 의존도는 축소되고 있음.
  - 對日 소재 부품의 의존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수입 금액은 2011년 사상최고치인 397.2억 불 기록한 후 감소 추세
  - \* 소재부품 對日수입액(억 불): 302.9억 불('09년) → 380.9억 불('10년) → 397.2억 불('11년) → 374.0억 불('12년) → 344.4억 불('13년)

## 〈 對日 소재·부품 무역적자 및 수입의존도 〉

(단위: 억 불,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소재부품	△243	△228	△222	△205	△38
소재	△142	△119	△119	△100	△21
부품	△101	△109	△103	△105	△17
對日 수입의존도	25.2	23.6	23.0	20.8	18.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1.

- 조선·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수입물량 둔화, 수입선 다변화\*, 對日 소재 부품 기업의 국내이전, 국내기업의 對日 소재·부품 대체 등에 기인

\* ASEAN(152억 불, 전년비 + 15억 불), 유럽(280억 불, 전년비 + 22억 불), 중국(443억 불, 전년비 + 12억 불) 등 일본 외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소재·부품 수입이 확대

-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에서 개선되었으나, 화학제품(△44억 불), 전자부품(△39억 불), 정밀기기부품(△21억 불)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적자가 지속

## 〈 소재·부품 12대 업종별 對日 무역수지 〉

(단위: 억 불, %)

구 분	2012			2013			증감액	기여율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 산업	388	644	-256	347	600	-253	+3	-	
소재부품	152	374	-222	139	344	-205	+17	100.0	
- 소재	75	194	-119	66	167	-100	+19	107.5	
- 부품	77	180	-103	73	177	-105	-1	-7.5	
소재	섬유제품	2	2	0	2	2	0	+0	0.3
	화합물 및 화학제품	26	74	-48	24	68	-44	+4	2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7	34	-28	6	28	-22	+5	30.8
	비금속광물	2	21	-19	3	14	-12	+7	41.0
	제1차금속	38	63	-25	32	54	-22	+3	15.3
부품	조립금속제품	4	4	0	4	5	-1	-1	-6.7
	일반기계부품	23	45	-22	22	47	-26	-4	-22.0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1	3	-2	1	3	-1	+1	4.8
	전기기계부품	8	24	-16	8	23	-16	0	2.1
	전자부품	28	62	-34	27	66	-39	-5	-29.5
	정밀기기부품	3	27	-25	2	23	-21	+4	22.8
	수송기계부품	9	13	-4	10	10	0	+4	20.9

- 올 4월까지 對日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23.53% 감소하였음.
- 이는 부품소재 분야의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인 18.1%를 기록하면서 적자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6억 불 감소된 데 기인
- \* 對日 무역수지: △93억 불(2013년 1분기) → △71억 불(2014년 4월 누적)
- \* 부품소재 對日 무역수지: △54억 불(2013년 1분기) → △38억 불(2014년 1분기)

## 2. 직접투자: 일본이 한국보다 6배 이상 투자(일본 354.9억 불 vs 한국 57.9억 불)

- 일본의 對韓투자는 2013년까지 누적 12,733건 354.9억 불 신고, 항공 전기전자 등 부품·소재 분야 직접투자 비율이 높음.
- 1965년 1건 50만 불이 신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45.4억 불로 최고액을 신고
- 2012년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일본의 對韓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제조기반을 해외로 이전코자 하는 일본 제조업의 對韓투자가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한 데 기인하였음.
- \* 일본의 對韓 제조업 분야 투자액(백만 불): 1,226('10) → 1,265('11) → 2,125('12)
- 2000년에 접어들면서도 일본의 對韓투자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직접투자 신고제 전환' 등의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일본의 円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 일본의 對韓투자 현황 〉

(단위: 건 수, 천 불)

년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증감액
1965	1	500	
1970	95	21,355	20,855
1980	59	42,518	21,163
1990	234	235,530	193,012
2000	615	2,451,886	2,216,356
2010	423	2,082,692	△369,194
2011	502	2,289,134	206,442
<b>2012</b>	<b>564</b>	<b>4,541,610</b>	<b>2,252,476</b>
2013	447	2,689,660	△1,851,950
누적	12,733	35,495,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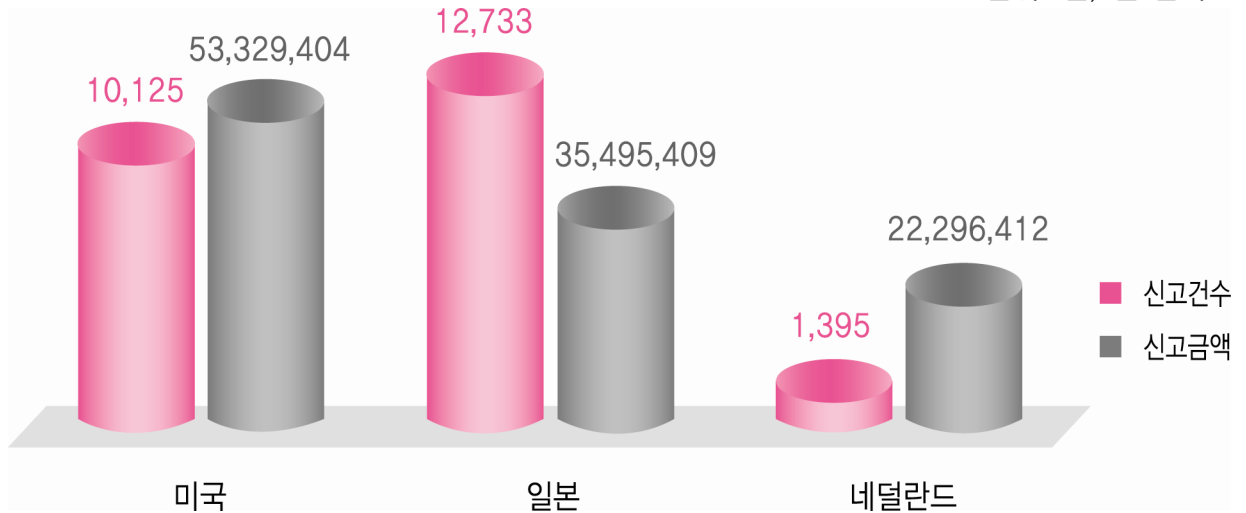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



- 1965년부터 누적 투자금액(신고기준)으로는 일본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2위 투자국이며, 건수로는 1위
- 투자 기업수로는 2014년 현재 전체 15,838개 중 일본투자기업이 3,202개로 2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기업이 2,309개로 14.5%, 중국 기업은 2,140개로 13.5%

〈 對韓투자 상위국가 현황(1965~2013년) 〉

(단위: 건,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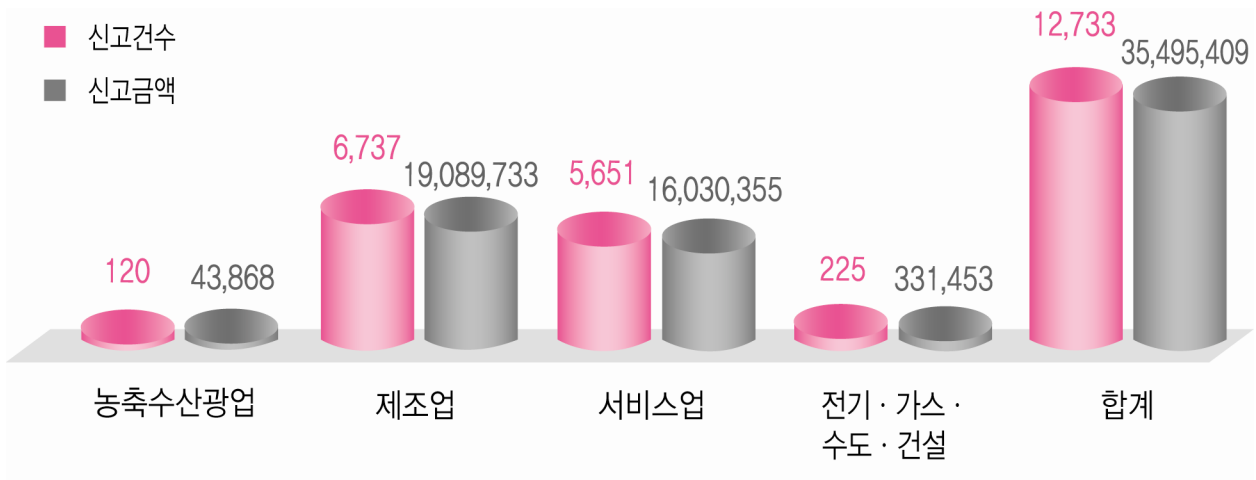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산업별로는 전체투자액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업에 투자되었음.

〈 일본의 산업별 對韓투자 현황(1965~2013년 누적) 〉

(단위: 건, 천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규모별로는 1,000만 불 이상 1억 불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1억 불 이상 투자도 52건이나 신고되었음.
-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당 금액은 확대 추세로, 2007년 2,107천 불에서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여 2012년에는 건당 8,053천 불 투자

〈 일본의 투자규모별 對韓투자 현황 〉

(단위: 건, 천 달러)

	1백만 불 미만	1백만 불 ~ 1천만 불	1천만 불 ~ 1억 불	1억 불 이상	합계
신고건수	10,183	2,163	481	52	12,733
신고금액	2,397,895	6,847,714	14,355,550	11,894,250	35,495,40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2013년 말 잔액 기준 일본의 직접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투자 금액도 EU 다음으로 높음.

〈 2013년 지역별 對韓 직접투자 잔액 현황 〉

(단위: 억 달러, %)

	총액	미국	일본	중국	EU	동남아	중남미	중동	기타
전체투자금액	9,910	2,744	854	339	2,705	1,595	372	387	914
직접투자금액	1,673	316	451	21	646	123	30	4	81
직접투자비중	16.88	11.51	52.81	6.19	23.88	7.71	8.06	1.03	8.86

자료: 한국은행 2013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 일본의 對韓투자는 상당 부분 한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학 공업, 전기전자 등 소재·부품 및 중간재 비중이 큰 것이 특징
- JETRO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 직접투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81.4%가 한국 내에서 수요되고 있음.
- 일본의 對韓 제조업투자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48%('00년), 55.4%('05년), 94.6%('10년), 90.9%('12년)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 2013년 주요 對韓투자 일본기업: F.C.C(자동차부품), 일본전기초자(LCD용 특수유리), 테이진(화학제품), 토레이(화학제품)
- 2012년 급증했던 일본의 對韓투자는 2013년에는 2011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1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24.62% 증가
- \* 일본의 對韓투자(천 불): 598,801('13년 1분기) → 746,247('14년 1분기)

-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며, 2013년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對韓투자는 감소
  - 작년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10.3% 증가하였으나, 對韓투자는 -17.5%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 유치 방안 마련 필요

〈 일본의 최근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비	증가율
아시아	20,636	22,131	39,492	33,477	40,470	29.9	20.8
중국	6,899	7,252	12,649	13,497	9,104	6.7	-32.5
ASEAN	1,610	8,930	19,645	10,675	23,619	17.4	121.2
인도	3,664	2,864	2,326	2,802	2,155	1.6	-23.0
<b>한국</b>	<b>1,077</b>	<b>1,085</b>	<b>2,439</b>	<b>3,996</b>	<b>3,296</b>	<b>2.4</b>	<b>-17.5</b>
북미	10,889	9,016	15,166	35,768	46,505	34.4	30.0
미국	10,660	9,193	14,730	31,974	43,703	32.3	36.6
중남미	17,393	5,346	11,287	10,454	10,197	7.5	-2.4
브라질	3,753	4,316	8,290	4,113	4,037	3.0	-1.8
오세아니아	7,629	6,07	8,767	11,075	6,098	4.5	-44.9
호주	7,136	6,371	8,149	10,890	5,835	4.3	-46.4
유럽	17,830	15,043	39,841	31,017	32,227	23.8	3.9
EU	17,039	8,359	36,052	29,023	30,999	22.9	6.3
세계전체	74,650	57,223	108,807	122,355	135,049	100.0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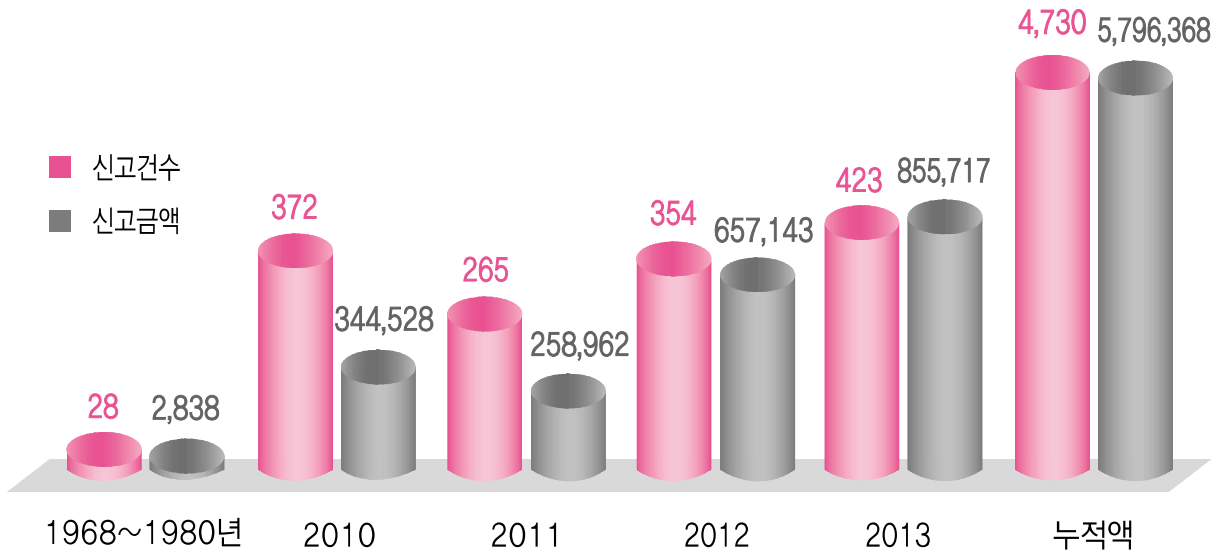
주: 국제수지기준, 넷, 플로우 기준

자료: JETRO 홈페이지

- 한국의 對日투자는 1968년 이후 4,730건, 57.9억 불이 누적 신고되었음.
  - 1980년 이전까지는 283.8만 불에 머물렀던 한국의 對日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8.5억 불을 기록하였음.

〈 한국의 對日투자(1968~2013) 〉

(단위: 건,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에 가장 많은 금액인 15.4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순임.

〈 한국기업의 업종별 對日투자 현황 〉

(단위: 건, 천 달러)

업종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도매 및 소매업	1,457	1,540,468
제조업	1,726	1,343,0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56	755,8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84	1,145,767

주: 1968~2013년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12), 코트라 동경 사무소 재인용

-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투자기업이 도쿄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오사카부에 소재해 있음.

〈 일본 지역별 한국기업수 〉

지역명	도쿄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기타 지역
기업수(개)	356	80	15	19	76

주: 법인, 지점, 사무소 모두 포함(2013년 12월 기준)

자료: 제일한국기업연합회

- 2000년 이전에는 주요 대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였으며, 2000년 후반에는 한류와 더불어 CJ 등 식품 관련 회사, NHN 등 IT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남.

〈 일본 진출 주요 한국기업 리스트 〉

(단위: 억 엔, 명)

회사명	투자연도	사업 내용/제품	자본금	직원수
일본 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 등)	83.3	269
대우 재팬	1974	도·소매업(철강제품 등)	4.8	47
현대모터 재팬	1979	도·소매업(자동차 등)	4.5	
LG 재팬	1980	도·소매업(섬유 등)	0.9	55
한화 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 등)	6.9	70
진로 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 등)	2.0	103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 키친 등)	2.3	
SK하이닉스 재팬	1996	도·소매업(반도체 등)	10.0	
KNTV	1996	한국어 위성방송	9.1	
NHN PlayArt	2000	게임	1.0	450
CJ Japan	2002	식품	0.4	
포스코 재팬	2004	냉연강판 제조	44.4	66

자료: Kotra 동경 사무소 홈페이지

- 직접투자 이외에도 M&A(출자포함)형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출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일본의 기술력을 벤치마킹 가능

〈 한국기업이 출자한 주요 일본기업 〉

기업명	금액(백만 엔)	업종	출자기업명	출자시기
골드윈	10,329	섬유	양원 홀딩스	2012년
일본전산 산쿄	35,270	전기	OPTIS	2012년
알파나테크놀로지	18,500	기계	삼성전기	2012년
요코가와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43,401	전기	DHK솔루션	2012년
온코 테크놀로지 서울	52,613	전기	모뉴엘	2012년
도쿄오카공업	80,037	전기	삼성물산	2012년
샤프	10,383	전기	삼성 재팬	2013년

자료: Kotra 동경 사무소 홈페이지

### 3.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에서는 한국이 134.47억 불 흑자, 訪韓 외국인관광객 일본이 1위

- 운송, 여행, 기타사업 서비스수지는 흑자, 지재권 사용료에서는 적자 지속
- 對日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제외하고는 1998년 이후 흑자를 유지
  - 대규모 운송수지 흑자를 기록한 2012년이 42.6억 불로 최고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이후 누적 흑자는 134.4억 불
  - 적자를 기록한 2005~2007년의 경우 운송과 여행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여행수지에서 사상최대 적자 기록
  - \* 2005년 서비스수지(백만 불) △379, 운송수지 △410, 여행수지 △535
  - \* 2006년 서비스수지(백만 불) △1,504, 운송수지 △472, 여행수지 △1,531
  - \* 2007년 서비스수지(백만 불) △2,721, 운송수지 △25, 여행수지 △3,196

#### 〈 對日 서비스수지 현황 〉

(단위: 백만 불)

항목명1	1998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998~2012)
서비스수지	2,141.20	343.30	1,157.40	1,552.60	935.30	4,264.30	13,447.70
운송수지	-516.00	288.40	54.70	927.50	1,644.90	2,118.70	2,528.50
여행수지	2,446.10	-428.60	1,594.00	848.60	-375.40	1,974.40	8,260.20
보험서비스수지	-3.20	-23.90	-37.30	39.10	-12.80	-10.60	-112.70
지재권사용료수지	-517.60	-657.50	-993.90	-935.60	-822.80	-563.90	-8,456.20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수지	8.80	-10.00	-38.90	4.10	24.20	135.00	-64.30
기타사업 서비스수지	549.70	813.10	397.80	374.40	306.60	228.10	7,645.60
정부서비스수지	-27.70	-42.80	-42.90	-45.20	-51.40	-61.30	-487.20
기타서비스수지	61.20	47.80	-66.40	12.50	-15.40	104.30	368.5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4년 5월 기준(최신 수정치 미반영)

- 일본은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이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
  - 한국은 2,000년 이후 전체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전환, 1998년 이후 991억 불 적자 기록
  - \* 주요국과의 누적 서비스수지: 미국 △807.8억 불, 중국 △210.4억 불, EU △714.1억 불
- 1998년 이후 흑자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여행수지로 2012년까지 82.6억 달러 누적흑자를 기록하였음.
  - 1985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관광객수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보다 2,200만 명 이상 더 많음.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누적관광객수로 1위는 일본, 중국이 2위
  - \* 방한누적관광객수(2013년까지) 일본 57,726,966명, 중국 43,650,493명

〈 한-일 관광객 교류 현황 〉

(단위: 명)

	1985년	2000년	2012년	2013년	누적(1985~2013년)
한국 → 일본	166,523	1,100,939	2,044,249	2,456,100	35,623,128
일본 → 한국	576,448	2,472,054	3,518,792	2,747,750	57,726,966

자료: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JNTO)》

- 기타사업서비스수지와 운송수지도 여행수지 다음으로 큰 누적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對日 서비스수지 흑자에 큰 기여
  - 연구개발, 전문경영컨설팅, 기술·무역수지가 포함된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경우 76.4억 달러의 누적흑자를 보였으며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운송수지의 경우 2007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흑자로 전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부터는 대규모 흑자를 실현
- 지식재산권사용수지에서는 적자가 1998년 이후 △84.5억 불 누적되었으며, 여행수지의 흑자를 상회함.
  - 지식재산권사용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기술무역적자의 경우 1997년 △5억 달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10% 후반에서 20% 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연도별 對日 기술도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기술 수입	기술 수출	무역수지
1997	505.2(20.9)	0.0(0.0)	-505.2(22.4)
2005	583.8(12.9)	62.8(3.9)	-521.1(18.0)
2010	1,257.4(12.3)	46.2(1.4)	-1,211.1(17.6)
2011	1,243.7(12.6)	198.2(4.9)	-1,045.5(17.8)
2012	1,148(10.3)	389.3(7.3)	-758.7(13.2)
합계	11,079	4,746.4	-9,836.2

주: ( )안의 수치는 한국의 전 세계 기술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14년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산업기술진흥협회)

- 對日 서비스수지 흑자의 주요 항목인 관광수지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작된 訪韓 일본 관광객의 감소추세가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되고 있어 동 분야 적자가 예상됨.
- 올해 1분기 訪韓 일본인 관광객수는 609,961명으로 전년 동기 712,527명 대비 12.99% 감소하였음.
- \* 訪日 한국인 관광객수: 675,792명('13년 1분기) → 679,100명('14년 1분기)



### Ⅲ. 향후 경제협력 과제

- 주요 품목의 對日수출 감소, 글로벌 경쟁 강화 등에 따라 對日수출 여건은 쉽지 않을 듯,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함.
  - 對日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제품이, 일본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한국의 석유제품에서 타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동 분야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新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최대화할 계획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판 등 주요 對日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일본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4개 중 중국과 12개 품목에서 경쟁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 철강제관 등 7개 품목은 3% 이내 점유율 차이로 경쟁 중
  - 자동차부품 등 최근 對日수출이 증가한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對日시장 개척 필요
    - 일본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부품조달 확대전략과 한국자동차 부품의 경쟁력 향상이 맞물려 자동차 부품의 對日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 자동차부품 對日수출(억 불): 5.73('10년) → 7.8('12년) → 8.0('13년)
  - 일본 내 기업, 종합상사 및 유통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 전략도 고려 필요
    - 삼성전자는 일본 도코모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 개척에 성공
    - 오비맥주는 일본의 대형 유통회사 이온(AEON)을 거쳐 1,0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3,000개에 달하는 편의점 등을 통해 국내 생산 맥주 판매. 2012년 2%의 수출 성장 달성
  - 부품의 공통화 및 기술표준 협력을 통해 수출 가능성 증대 필요
    - 최근 도요타의 경우 해외부품조달을 위해 4,000개의 부품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공통화할 계획
    -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 표준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표준 협력은 상호 부품 조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부품소재 국산화 전략 및 정밀화학 분야 일본기업 한국 유치 전략을 통해 對日 무역수지 개선 필요

-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부품소재 분야의 수입선이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품소재분야 對日수입액은 감소하고 있음
    - 2011년부터 급증한 화학 기업 중심 일본기업의 국내직접투자로 인해 그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던 부품소재 한국 내 생산이 늘어날 전망
  - 최근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책에 따라 對日수입 부품소재의 국산화도 증가 추세
    - 섬유업체 H사의 경우 PLA(Poly latic acid) 대비 내열성이 우수한 생분해성 폴리에스테르 소재 및 제품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14년 289억 원, '16년 1,85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장비기업 S사의 경우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노광공정장비를 대체할 Roll/inkjet printer 개발에 성공, 약 170억 원 규모 매출 발생
  - 기술격차가 큰 정밀화학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일본 업체를 한국으로 적극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
    - 세계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용 차단재, 감광재, 디스플레이 반산방지필름, 액정평광판 보호필름, 배터리의 니켈수소 양극재 등 분야의 일본기업이 최근 일본 내 수요 기업의 부진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 제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납품을 목적으로 한 일본 소재 기업의 對韓투자도 최근 늘어나고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 기업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
    - 對韓투자 일본 제조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80% 이상이 한국 내에서 수요되고 있으며, 對韓투자 일본 제조업 기업의 대부분이 부품소재 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수요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일본의 對韓투자도 확대 가능
    - \* 스미토모 화학의 경우 2003년 한국에 진출하여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인 액정TV에 필요한 필름을 생산, 2011년에는 LED의 핵심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삼성 LED와 합작법인을 설립
    - \* 일본전기초자의 경우 2012년 LG디스플레이에 납품을 위한 유기 EL용 유리 제조공장을 설립
    -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주력업종인 화공업종의 경우 한국 내 약품 반입 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과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요청
-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제3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 한국 EPC<sup>1)</sup> 기업의 엔지니어링 및 시공 능력과 일본 상사의 정보력과 자금동원력이 결합된 韓日 해외인프라 공동 수주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임.
  - 해외인프라 플랜트 건설 규모가 초대형화됨에 따라 일국 기업과 금융기관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가 힘들어 국가 간 협력이 불가피함.
  - 한국은 2011년 세계 플랜트 분야 점유율 3위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ECA(Export Credit Agency)와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조성 능력이 세계 선두권임.
  - \* 2011년 기준 일본의 JBIC(국제협력은행)과 NEXI(일본무역보험)는 세계 1위의 PF 실적을 기록, 일본 3대 상업은행도 세계 2,3,4위 공동 주간사로 부상
-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韓日 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이 지분 공동투자, 공동출자, 플랜트 건설 수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광물자원공사와 스미토모상사가 함께 참여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Ambatovy Nickel Project가 첫 번째 韓日 자원공동개발 사례
  - 2013년 10월 현재 제3국 인프라 및 자원개발 분야의 약 35개 프로젝트에서 韓日 기업이 협력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플랜트 등 인프라 공동 수주 프로젝트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많음.
  - \*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상사가 LNG를 공동개발하는 인도네시아 Donggi -Senoro Project에는 EPC 분야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두산이 참여
- 제조업 분야의 韓日 제3국 공동 진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진출한 韓日 합작기업은 모두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에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
  - 2000년대 후반부터 철강, 화학, 자동차부품, 식료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韓日 제3국 공동 진출이 이루어졌음.
  - \* 아시아 내 합성고무의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롯데케미칼과 우베코산, 미쓰비시상사가 말레이시아에 공동 설립한 MSR SDN BHD사의 경우 우베코산이 기술을, 롯데케미칼 현지계열사가 원료를 제공하는 구조
- 콘텐츠, 헬스 케어 등 서비스 분야로도 韓日 제3국 공동 진출을 확대해야 함.
  - 최근 韓日 양국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해외진출이 부진하며, 韓日 서비스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은 전무
  -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는 양국 모두 경쟁력은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유통망 구축이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동 진출을 통한 해외진출이 유망함.

1)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의 약자로 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까지 하는 기업.

- 헬스케어도 양국이 중점 육성하는 사업 분야로 한국의 IT기반의 병원시스템과 일본의 높은 기술력, 자본력, 브랜드파워를 결합한다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 등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 가능

## 참고문헌

- 사공목 외(2013),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산업연구원.  
안현호(2013), 한·중·일 경제삼국지, 나남출판사.  
김규판 외(2013),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박용삼(2013), 일본은 어떻게 소재강국이 되었나?,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4),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오세환(2014),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한국무역협회.  
명진호(2012), 최근 일본의 對韓 투자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2014), 한국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2014), 외국인투자통계.  
기획재정부(2013), 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 한국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2013.1.17.  
산업통상자원부(2014), 소재·부품 對일본 수입의존도, 사상 최저치 기록, 2014.4.18.  
Kotra 도교무역관(2014), 한국기업 진출 현황.  
한국은행(2014), 2013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일본 경산성(2013.), インフラ・システム輸出の現状.  
JETRO(2014), 日本の直接投資.  
JETRO(2014), 2013年度 在アジア・オセアニア日系企業活動実態調査 域別集計結果.  
岩崎薫里(2013), 円安ウォン高でも韓国企業は脅威か, 日本総合研究所.